

“도덕적 교리, 행동운동 전환 필요”

14·15일 '관용과 평화' 주제 '95 종교지도자 세미나

광복 및 분단 50주년과 유엔이 정한 '세계 관용의 해'를 맞아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동은신부)와 문제부가 공동 주최한 '관용과 민족공동체 평화' 주제 95 종교지도자 세미나가 지난 14일, 15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렸다.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민족종교 등 각 교단 지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종교의 역사적 사명과 남북간 종교 교류, 종교간의 화합과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계 현안과 역할이 깊어졌는데 의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은



△교단신부 김동은



△수석연구원 김재경

종교간 화합 통한 남북교류 7개방안 제시 '조화로운 세상'에 사회참여 초점 맞춰야

이종교수는 '한국종교 그 역사적 사명'이란 발표문을 통해 한국종교가 △도덕적 교리의

제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든 종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종교운동

참여자에게는 구체적인 영광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교수는 한국종교가 △정보사회에 뒤쳐 문화지체현상에 빠졌고 △다종교사회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교단운영과 지성운동을 조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덕운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종교의 상회화로 종교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은교수는 "가치관의 사회적 실체이며 가장 강력한 사회적

동원력을 지닌 조직이 종교"라며 "종교의 사회적 책임은 종교가 선포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 선포에 담긴 사회에 대한 약속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광스님(동국대학교)은 '이상적인 종교의 사회참여'를 통해 "종교의 사회참여도 과거 추진형의 불합리한 봉사에서 한 차원 높고 종교의 본질에 가까운 선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3·1운동 당시 종교인들의 단합처럼 남북통일이란 과제 앞에 모든 종교간의 조화와 관용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신학대학 김명희교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배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에 주력 △교단간 협력 등을 통한 단일창구 조성 △물질적 도움도 결합 것 △북한 종교의 재건을 간접적으로만 지원 △해와 한인 종교지도자와의 협력 강화 △종교간 만남의 활성화 등 바람직한 남북간 종교교류의 7가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재경 기자

동아시아속 한국불교 위상 조명

UCLA대 한국학연구소 유형민속자료 분류안 소개 '민속학연구' 제2호

미 UCLA대학 한국학연구소는 지난 15일~19일 동대학에서 버스랜드고수 세계적 불교학과 20여명을 초청,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의 한국불교의 위상'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한국불교가 동아시아 불교에 미친 영향을 조명할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측에서 일본의 정토진종 창시자, 천란의 사상에 미친 신라스님 경흥의 정토사상'을 발표한 김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과)와 정병조(동국대 국민윤리학과) 심재홍(서울대 철학과)교수가 참석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최근 '일제하 민속학 연구의 재조명'이란 주제에 기획논문 3편과 연구논문 8편을 실고, 부록으로 '유형민속자료기능분류안'을 소개한 '민속학연구' 제2호를 발간했다. 특히 유형민속자료기능분류안은 전국 주요 국공립민속박물관 관계자와 민속전문가들의 협의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박물관 유물 전산화 및 소장민속유물의 체계적 정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방의 수호신을 봉안한 천왕문과 주련.

'자연=내 몸' 깨달을때 환경위기 해결

불교환경교육원 3차 생명운동 심포지엄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의 3번째 생명운동아카데미 심포지엄이 열렸다. '현대과학사상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환경문제는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며 생활양식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서구 생태주의 사상'에 이어 마련된 기획 심포지엄. 생명과 환경운동 이념의 과학사상·문명사적 의의를 반성적으로 조

명한 이번 심포지엄은 환경문제를 새로운 문명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매시지로 파악했다. 이날 환경과자연철학연구소 최종덕소장은 '과학과 신화의 이중주'란 발표문을 통해 환경문제와 연관해 △서구과학의 인식의 한계성 △서구의 기계론과 결정론 △분리주의와 환원주의 등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환경운동의 실천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 서울대 장희익교수는 '생명문제의 문명사적 의의'를 통해 생명 개념을 개체생명과 온생명(각단계의 개체생명들로 구성된 유기적 체계 전체), 보생명(개체생명을 제외한 온생명의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고, 인간과 문명의 조화를 강조했다. 장교수는 "병적 양상을 보이는 현대 물질문명은 증폭적인 악순환에 놓여있다"면서 "온생명이 바로 내 몸과 생명을 깨달아 나갈 때 이러한 병리가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들리며 각각의 이름과 들고 있는 물건들이 다르다. 동쪽의 지국천왕(持國天王)은 칼을 쥐고 있으며 서쪽의 광목천왕(廣目天王)은 탑을 들고 있다. 남쪽의 증장천왕(增長天王)은 용을 잡고 있으며 북쪽의 다문천왕(多聞天王)은 비파를 들고 있다. 이렇게 사방을 수호하는 신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김용사 천왕문
四大天王威勢雄 (사대천왕위세웅)
護世巡遊處處通 (호세순유처처통)
從善有情隨勝勝 (종승유정승승승)

깨끗한 마음 듣게하는 관문
왕들 대신 금강역사상을 조성해 금강문의 역할로도 사용하지만 대개 금강문은 천왕문에 이르러전에 따로 세우는 것이 관례다. 금강문은 금강역사들을 모신 문이다. 어쩌거나 천왕문은 사찰 경내가 그만큼 신성하고 엄숙하다는 것을 표방하는 역할을

하는 문이다. 또 사바세계에서 갖고 온 번뇌망상과 탐욕, 분노 등을 모두 사천왕에게 조복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서는 경계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천왕은 다만 사찰의 파수꾼이 아니라 인간세계

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선(善)의 수호신장이란 뜻이 이 주련에는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다분히 관성장악의 논리에 부합한 이 사찰의 천왕문을 지나며 새기는 순간마다 속진의 번뇌가 씻어질 것 같은 매력을 주고 있기도 하다. <안동 경인중 교사>

병이 낫다가 도로 마찬가지로 돼

어느 때 본원에서 저와 비슷하게 신병을 앓고 있는 분이 질문한 것을 보았습니다. 노년의 답변을 읽고 나름대로 믿고 말하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악을 안 먹고도 뱀나 치도가 있어서 '옳다 됐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로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여쭙기 부끄러우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효순·서울 종로구 송동동>

를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고 약이나 약이 다치지게 모두 과거 지은 결과입니다. 지금의 나 자신은 과거의 인연이라 통치로 통치 결과라서 모든 게 다 내 배낭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나를 형성시킨 것도 그 배낭에 들어있고 내 안에 담긴 일들도 다 그 배낭 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배낭을 키퍼터라 해도 좋습니다. 과거에 입력된대로 경계에 부딪히면 마치 키보드를 두드린 것 같이 지료가 튀어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가 나오게 하려면 아니, 아예 지워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방 내려 놓아야 하겠

공이 용어풀이에 집착하신다면 불교사전을 찾아 보실 일입니다만 이를 따라서 부처님이 그렇게 많이 계시다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명호가 만가지라도 부처님은 한자리입니다. 또 누구나 깨우쳐 성불하면 부처님과 한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수만명이 깨우쳐도 마음도리에서 부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따로 계시지 않는다,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 공부가 잘 안됩니다

제 댁에는 마음공부를 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할 일도 많아서 전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주상·김원 삼척시 교동>

일 저 일 무슨 일이 그리도 많습니까? 또 이 일 저 일 하면서 마음공부는 따로 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행·주·좌·와 그대모가 다 공부요 일체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닌가? 다가오는 경계 어느 것 하나라도 공부재료가 아닌 게 없습니다. 누누히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일이 많아서 공부가 끊긴다니 일과 공부가 어찌 둘이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일 다하고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성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 보내주시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유선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해 줍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지요. 그래서 일체는 주인공 거처서 나온 것이니 살던 죽던 되살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잘 믿지 못해서 긴가민가 한다면 입력된 게 잘 지워지겠습니까? 이와 믿고 말할 양이면 아주 절실하게, 절절할 것 같고, 어린이가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어디로 가든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고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할 때는 좀 하는 듯 하다가도 급한 불만 끄고나면 또 그냥 호지부지 하고 갑니다. 지우려면 깨끗이 지워야 하고 녹이려면 흔적없이 녹여야 하고, 뽑으려면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그냥 호지부지해지고, 뜰해지면 결과도 그렇겠지요. 나무를 비벼서 불을 얻을 양이면 불이 붙을 때까지 비벼야 비비다 말린 연기간 나고 불은 일지 않습니다.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일 속에 공부가 있고 공부 속에 일이 있습니다. 이 공부가 마음공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서 어느새 공부와 일을 둘로 보고 있군요.

이 몸 쓰레기 어떻게 쓸어낼지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바로 서방정도 극락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몸통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쓸어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득룡·광주시 금남로>

흔히 말하기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입고 간단한 표현이지만 뜻에 따라서는 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황천길일 수도 있고, 극락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타불이 따로 어느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한 생각 내니 아축불도 되고 아마타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이름일뿐 마음내는 대로이며 모두 한마음이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내 마음 속에 묻어 놓으며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쓸어내느냐고 하시는데 나를 이끌고 가는 것도, 들머리에 채어 무를 깨지는 것도, 육신 벗을 때 털 익은 공이 아니라 능 익어서 꼭 뜯드리기만해도 콩깍지가 짝 벌어지는 그런 도리도 모두 한마음 공부도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생애도 진화해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고 자재천에 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부처님·보살님 이름이 많은 이유

비로자나 청정법신불, 석가모니불은 알겠는데 노사나불은 어떤 부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부처님·보살님의 명호가 많은데 왜 그렇게 많으신지 궁금합니다. <서정석·충남 천안시>

부처님, 보살님 이름이 많은 게 아니라 처사님도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노릇 할 때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고 아들 노릇 할 때는 또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이카요, 사회생활 하면서 온갖 이름이 많고 많지요. 부처님 이름도 그와 같습니다.

경 ▶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 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 세계인을 위한 ●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비만인에게 나타내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한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작하여 만든 제품.

●심이 돈독한 佛子로서 약간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 국씨전영양소 사업에 동참할 헌분을 초빙합니다. Mr. 박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도덕동) 동소영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국씨 전 영양소(한국총판)
전화:(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